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제주교육대학교

조교수: 金 孝 心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 Hyo Shim, Kim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申 淳 植

Dept.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Hyo Shick, Shin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네 집단 즉, 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인, 무배우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경제상태와 사회적 활동정도 및 사회적 지원(자녀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무배우 노인들은 유배우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그 중에서도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네 집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본 결과, 유배우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지원,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는 경제상태,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도구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 지원,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최근들어 양적으로 증대한 노인을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는 경제적 빈곤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약화, 그리고

* 본 논문은 김효심(1994)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가정적·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활동의 축소 및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존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더욱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회 변화와 더불어 급증한 노인들의 의존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의 제공 및 지원의 주체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여도 가족, 특히 성인자녀는 노인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의 경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공식적 서비스가 갖는 한계때문에 노인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서적·윤리적 측면의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최근 노인의 적응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가족, 더 나아가 친구나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인적 지원체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태현, 1981; 박재간, 1986; 서미경, 1990).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 봄과 아울러 가족 이외에 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비공식적 지원체계들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함에 있어 독립변인들 중 노인의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외에 사회적 지원(자녀와 친구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선정하여 지금까지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집중시켜 온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 점차 그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친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가능성 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 배우자 유무를 통제하여 노인을 네 집단 즉, 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인, 무배우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의 기본 배경으로서 남녀비와 유배우율과 같은 노인 집단 내의 양적 차이가 노화과정이나 노후 생활 적응에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본 때문이며 노인 집단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 및 관련 변인을 밝히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이나 그 실제적 적용에 더 적절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네 집단 노인(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인,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집단별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네 집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자녀와 친구의 정서, 도구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몇 가지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생활만족도: 60세 이상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그에 대한 태도, 과거의 삶을 비롯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원: 자녀와 친구에 의하여 제공받는 도구적, 정서적인 도움이다. 도구적 지원은 물질적 도움이나 서어비스 제공 등과 같은 도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지원, 즉 신체적 보살핌을 비롯하여, 물질과 금전같은 경제적인 지원, 또한 식사준비 및 가사일, 보호, 쇼핑 등의 각종 서어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적인 역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제공을 말한다. 또 정서적인 지원은 사랑, 관심, 존중, 동정, 소속감의 확인 또는 표현 등과 같이 주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지원을 말한다.

II.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상태

경제적인 빈곤은 노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측면 역시 경제적 부양으로 인식하고 있다(김태현, 198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Kalish(1975)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한다. Chatfield(1977)도 수입과 경제적 안정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의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경제적으로

만족하느냐 하지않느냐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김종숙(1987), 최혜경(1985)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노후의 사회 심리적 적응 또는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어(김명자, 1982; 홍순혜, 1984; Edwards & Klemmack, 1973; Graney, 1975; Mclelland, 1982; Sherman, 1975; Ward, 1979) 노년기에도 활동을 계속 활발히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활동이론을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노인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활동의 형태 중에서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유지되는 비형식적인 활동의 경우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아 노후 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사회적 지원

노인을 위한 비공식적 지원체계들 중 자녀와 더불어 친구의 존재 및 지원이 노후 적응에 유익하다는 점이 점차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Allan, 1986; Goodman, 1984; Spakes, 1979).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노인에게 비중있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고 도구적, 정서적 지원의 제공자가 될 가능성성이 가장 큰 자녀와 친구를 사회적 지원 변수로 선정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자녀와 친구 관계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도구적, 정서적인 지원행위의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윤경아(1990)는 친구나 이웃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을 더하여 친구 이웃 지원망을 평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친구의 소재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노인에게 친구로서의 의

미를 가지며 지원을 제공하는 자를 친구로 규정하여 이웃이 가지는 지원의 효과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854명으로 평균연령은 유배우 남자노인이 70.6세, 무배우 남자노인은 73.2세, 유배우 여자노인은 68.9세, 무배우 여자노인은 73.3세이다. 네 집단 노인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노인의 성과 배우자 유무 및 연령을 묻는 3문항과 노인이 지각한 경제 상태를 묻는 1문항, 사회적 활동정도에 관한 1문항, 사회적 지원에 관한 37문항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선행 연구들(박지원, 1985; Krause, 1988; McCallister & Fischer, 1978)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자녀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로서 각각의 지원 내용에 대해 '정말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각 문항의 합을 자녀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를 보면 .84~.94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Medley(1976)의 척도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김종숙(1987)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기초로 문항수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후 결과를 분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1993년 11월 15일에서 12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본인과

표 1. 조사 대상 노인의 분포

| 분 류 | 유배우 436(50.0) | 무배우 436(50.0) |
|---------------|------------------|------------------|
| 남자노인416(48.7) | 228(26.7) | 188(22.0) |
| 여자노인438(51.3) | 208(24.4) | 230(26.9) |
| N(%) | 854(100.0%) | |

교육을 받은 조사원(가정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이 가정 방문, 노인정, 노인단체 등을 통해 개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두 892부의 질문지가 얻어졌으나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85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축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 및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 및 자기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등을 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및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Pearson's r계수, 단계별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가지고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차이

표 2. 노인의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의 일반적 경향

| 변수 | 구분(계) 집단 | 남자 노인 | | | | 여자 노인 | | | |
|-----|-------------|----------|------|----------|------|----------|------|----------|------|
| | | 유배우(228) | | 무배우(188) | | 유배우(208) | | 무배우(230) | |
| | | N | % | N | % | N | % | N | % |
| 경 제 | 여유있다 | 49 | 21.5 | 35* | 18.8 | 47 | 22.6 | 50 | 19.6 |
| | 중간이다 | 141 | 61.8 | 116* | 62.4 | 124 | 59.6 | 135 | 58.7 |
| 상 태 | 부족하다 | 38 | 16.7 | 35* | 18.8 | 37 | 17.8 | 45 | 21.7 |
| 사회적 | 월5회이상 | 80 | 35.1 | 45 | 23.9 | 40 | 19.2 | 64 | 27.8 |
| 활 동 | 월1~4회 | 90 | 39.5 | 102 | 54.3 | 102 | 49.1 | 89 | 38.7 |
| 정 도 | 거의 안함 | 58 | 25.4 | 41 | 21.8 | 66 | 31.7 | 77 | 33.5 |

합계() 노인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3. 사회적 지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 변수 | 집단구분(n) 구분 | 유배우 | 무배우 | 유배우 | 무배우 |
|----|---------------|-----------|-----------|-----------|-----------|
| | | 남자노인(228) | 남자노인(188) | 여자노인(208) | 여자노인(230) |
| | | m(sd) | m(sd) | m(sd) | m(sd) |
| 자녀 | 도구적지원 | 3.71(.82) | 3.84(.80) | 3.86(.83) | 4.02(.74) |
| | 정서적지원 | 3.84(.74) | 3.67(.77) | 3.88(.77) | 3.82(.78) |
| | 총 지원 | 3.79(.69) | 3.74(.70) | 3.87(.71) | 3.90(.70) |
| 친구 | 도구적지원 | 2.52(.81) | 2.57(.88) | 2.66(.80) | 2.54(.83) |
| | 정서적지원 | 3.39(.81) | 3.37(.94) | 3.25(.88) | 3.33(.85) |
| | 총 지원 | 3.05(.75) | 3.06(.86) | 3.02(.80) | 3.02(.76) |

표 2에서와 같이 경제상태는 중간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이 네 집단 모두 60% 전후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활동정도에 있어서는 월 1회에서 4회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네 집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대체로 사회적 활동의 빈도가 적은 노인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보다는 사회적 활동의 빈도가 적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사회적 지원은(표 3) 자녀의 지원 점수가 비교적 높고 친구로부터의 지원 점수와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구조 및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해도 자녀가 노부모의 지원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노인의 의존 정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표 4) 일원 변량 분석 결과, $P<.0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Duncan test 결과 역시, 유배우 남녀

표 4.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

| 집 단(N) | 평균(sd) | Duncan test |
|---------------|-----------|-------------|
| 유배우 남자노인(228) | 1.10(.43) | A |
| 무배우 남자노인(188) | .84(.37) | C |
| 유배우 여자노인(208) | 1.12(.40) | A |
| 무배우 여자노인(230) | .98(.42) | B |
| F값 | 20.37*** | |

***P<.001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무배우 남녀노인들보다 높으며 무배우 노인 중에서도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은 네 집단 모두 중간 점수인 1점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중간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노후 생활에서 성과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차이를 낳는 근본 요인인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

네 집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자녀와 친구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변인을 하나씩 모형에 추가시키면서 또한 모형에서 선택된 독립변인들 중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별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변인들을 가지고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Pearson's r계수를 낸 결과, 네 집단 노인의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자녀/친구) 변인들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은 .11에서 .73의 범위로서 지나치게 직선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차적으로 회귀식 설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통해 잔차분석을 한 결과 1.61에서 1.98의 범위로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확대 인자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조사한 결과도 1.00 < VIF < 2.30으로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도 없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방정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자녀의 도구적, 정

서적 지원 그리고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각각 투입 변인으로 사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모두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네 집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5~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네 집단 모두 공통되는 부분은 사회적 지원중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상태 두 변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모든 집단의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자녀와의 유대 및 결속이 노인의 심리·

표 5. 유배우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변 인 | B | STB(β) | Partial R2 |
|----------------|-----|----------------|------------|
| 자녀(정서적) | .02 | .32*** | .14 |
| 경제상태 | .13 | .19** | .04 |
| 사회활동 | .06 | .16** | .02 |
| 회귀 상수 | | | -.07 |
| R ² | | | .20 |
| F값 | | | 18.45 |

***p<.01 ***p<.001

표 6. 무배우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변 인 | B | STB(β) | Partial R2 |
|----------------|-----|----------------|------------|
| 경제상태 | .18 | .29*** | .14 |
| 자녀(정서적) | .01 | .18** | .06 |
| 사회활동 | .07 | .17* | .02 |
| 친구(도구적) | .01 | .18* | .02 |
| 회귀 상수 | | | -.13 |
| R ² | | | .24 |
| F값 | | | 13.70 |

*P<.05 **P<.01 ***P<.001

표 7. 유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변 인 | B | STB(β) | Partial R2 |
|----------------|-----|----------------|------------|
| 자녀(정서적) | .01 | .30*** | .15 |
| 경제상태 | .16 | .26*** | .07 |
| 친구(정서적) | .01 | .26*** | .06 |
| 회귀 상수 | | | -.20 |
| R ² | | | .28 |
| F값 | | | 25.76 |

***P<.001

표 8.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 변 인 | B | STB(β) | Partial R2 |
|----------------|-----|--------|------------|
| 자녀(정서적) | .02 | .37*** | .19 |
| 사회활동 | .06 | .20** | .06 |
| 경제상태 | .12 | .19** | .03 |
| 회귀 상수 | | - .76 | |
| R ² | | .28 | |
| F값 | | 29.39 | |

P<.01 *P<.001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과(박영란, 1987; 조병은, 1988; Ward et al., 1984)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설명력 또한 무배우 남자노인의 집단에서만 2순위로 나타났을 뿐 세 집단의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유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점은 무배우 여자노인에게는 무엇보다 자녀의 비중이 높고 자녀와의 감정적 유대를 통해 얻는 만족이 클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경제상태에 대한 지각정도 역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져 네 집단 모두 경제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 상태의 지각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 결과들과(김종숙, 1987; Chatfield, 1977; Kalish, 1975) 일치하고 있다. 무배우 남자 노인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다른 세 집단의 노인들과는 달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가 생활만족도를 예측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 여부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 친구의 지원은 집단에 따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서, 유배우 남자노인과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배우 남자노인과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달리 친구 지원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친구의 지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두 집단의 경우 지원의 내용별로 영향력은 달리 나타나,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는

친구로부터의 도구적 지원의 효과가 크며, 유배우 여자노인은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친구로부터의 지원보다는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 친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비중이 높고 사회활동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보다 심화된 척도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경우, 유배우 여자노인을 제외한 세 집단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져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배우 여자 노인의 경우 사회적 활동은 어떠한 설명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 점, 즉 자녀의 정서적 측면의 지원과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유배우 여자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폭은 일차적 지원망이라 할 수 있는 자녀 그리고 비교적 절친한 친구 관계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활동의 정도보다는 자녀와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의 존재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심리 정서적 만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네 집단 즉, 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인, 무배우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경제상태와 사회적 활동정도 및 사회적 지원(자녀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네 집단 모두 60% 전후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활동정도에 있어서는 월 1회에서 4회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네 집단 모두 가장 많았다. 사회적 지원은 모든 집단에서 자녀의 지원이 친구의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0.84에서 1.12의 범위를 보여주어 대체로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무배우 노인들은 유배우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그 중에서도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경향이었다.

둘째, 네 집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본 결과, 유배우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지원,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는 경제상태,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도구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 지원, 경제 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독립된 노부부만의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없이 생활하는 것은 노인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무엇보다 무배우 노인-특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무배우 남자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의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때, 노후생활의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가족에서 자녀는 노인이 심리·정서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지며 애정과 친밀함에 기초한 결합에 의해서 노부모-자녀간의 유대가 형성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세째, 노인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노인이 가족이 제공하는 용돈이나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원조를 받고 있고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적 도움에 의해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 공적 부조에 의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은 매우 적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네째,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중 친구가 집단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인 지원 주체에 대해 보다 다양화하고 심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자료의 수집이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집단에 따라서는 표본수의 확보를 위하여 의도적인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집단별 노인에게 모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변인에 따라서는 단일문항을 통해 조사된 점이다. 세째는 노인들에게 자녀와 친구의 지원에 대해 한 시점에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녀 및 친구와의 관계 및 지원의 정도에 있어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네째는 자녀와 친구 이외에 노인에 따라서는 의미가 클 가능성성이 있는 관계망의 지원을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2)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효심(1994).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성과 배우자 유무별 집단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박영란(1987). 한국노인의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재간(1986).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 54-61.
- 7)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체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서미경(1990).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작용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10, 68-86.
- 9) 윤경아(1990). 노인부양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조병은(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 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11)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일본·태국·미국·영국·프랑스 6개국 노인의식구조 비교조사.
- 13)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Allan, G.(1986). Friendship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ging and Society* 6(1), 1-12.
- 15) Chatfield, W.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44, 169-171.
- 16) Edwards, J. and Klemmack, D.(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3, 497-502.
- 17) Goodman, C. C.(1984). Natural helping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24(2), 138-143.
- 18) Graney, M.J.(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6, 701-706.
- 19) Kalish, R.A. (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 Brooks/Cole Publishing Co.. 1.
- 20) Krause, N.(1988).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impact of stroke on primary support persons, *Psychology and Aging* 3(2), 131-141.
- 21) McCallister, L. & Fischer, C.S.(1978). A procedure for surveying personal networks, *Sociological Method and Research* 7(2), 131-148.
- 22) Mclelland, K.A.(1982).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723-732.
- 23)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4.
- 24) Spakes, P.R.(1979). Family, friendship and community interaction 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s* 1, 32-45.
- 25) Ward, R.A.(1979).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42, 483-445.
- 26) Ward, R.A., Sherman, S.R. & CaGong, M.(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39.